

지난해 수능 보다 국어 쉽고, 수학 나형·영어 어려워

평가원 9월 모의평가 實채점 결과

최고난도 문항은 상대적으로 평이
만점자 비율은 국·수학 모두 높아
영어, 전년 수능·6월처럼 어려워
1등급자 지난해보다 2.11% 낮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수학과 영어 영역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수능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겠지만, 전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29점, 수학기형 131점, 수학나형 139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5점 하락했고, 수학기형과 나형은 각각 1점, 4점 상승했다.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만점자 비율 증가, 최상위권은 쉬웠을 것
상대평가인 두 주요 과목의 표준점수



수능 D-50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 등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점은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는 쉬웠고, 수학기형, 나형 모두 어려웠던 셈이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등급구분 표준점수(1등급컷) 역시 국어는 127점으로 지난해 수능(128점)보다 1점 낮아졌고, 반면 수학기형은 124점, 수학나형은 133점으로

작년 수능 대비 각 1점, 4점 올랐다. 하지만 만점자 비율은 국어는 물론, 수학기형, 수학나형 모두 높아져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국어영역 만점자 비율은 1.51%로 전년 수능(0.6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기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소폭 상승했지만 만점자 비율은 0.83%로 지난해 수능(0.10%)보다 늘었다.

인문사회계열 지원자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랐지만 만점자 비율은 0.31%로 작년 수능(0.11%)보다 늘었다.

결국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최고난도 문항은 비교적 평이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원 시기자 수능기획분석실장은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작년 수능과 유사하거나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수학기형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수학나형은 다소 어려웠지만 표준점수 최고점자 비율을 보면 상위권에 학생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영어 1등급자 7.92%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7.92%(4만614명)였다. 작년 수능에서 10.03%(5만2983명)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의 경우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모두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돼 올해 수능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모든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과 같

거나 1~9점 높았고, 과학탐구도 화학 I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과 같거나 3~5점 높았다. 직업탐구 역시 1등급 커트라인이 상승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아랍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5점으로 제일 높았고, 독일어와 스페인어가 6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필수과목인 국어사영역에서는 원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21.27%(10만9299명)로 지난해 수능(12.84%, 6만8207명)보다 크게 늘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월 모의평가는 매우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대체로 지난해 수능 수준을 유지하는 등 '널뛰기' 난이도를 보여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널뛰기 난이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수능까지 남은 기간 심리적 안정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와 수학기형은 9월 수준으로, 국어는 9월보다 어렵게, 수학나형은 9월보다 다소 쉬운 정도로 보고 마무리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일자리 찾아 삼매경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 논술 눈앞... "실전처럼 연습할 때!"

가톨릭대 등 6개대 6일부터 시작
지원대 모의논술 문제 충분히 풀고
만일 위해 교과공부 감 유지해야

2019학년도 대입을 위한 논술고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다수 대학의 논술은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치러지지만 일부 대학은 수능 이전인 10월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1일 진학사에 따르면, 가톨릭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이 수능 전인 10월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논술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과 같은 연습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답안을 써야하는 논술은 충분한 사전 연습 없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기출이나

모의논술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시간을 재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게 좋다. 충분한 연습은 시험 당일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보통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합격 가능성 예측도 어렵다. 때문에 합격자를 뽑지 못해 총원합격자도 거의 없다. 따라서 논술 전형 준비에 올인하기보다는 학교 중간고사 준비에도 시간을 투자에 교과공부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게 좋다.

지난 2014학년도 이후 5년 만에 논술고사를 제도입한 성신여대나 올해 논술고사를 첫 도입한 한국기술교육대의 경우 각 대학입학처 홈페이지의 논술 가이드북이나 해설 동영상 등을 통해 논술고사 실시의도, 문제의 구성과 유형, 문항 해설과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의 경우 수학기형 수준에서 출제된다는 점과 공개된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평이한 편이지만 모집단위에 따라 과학논술이나 경제논술을 함께 치르다든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신여대 인문논술의 경우는 제시문은 구체적인 사례와 그 사례에 접근하는 상반된 관점들을 소개하는 자료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제시문 이해는 까다롭지 않지만, 문제가 제시문 비교나 분석을 별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완결된 답안을 원하므로 답안 작성에 앞서 개요를 구성하고 내용의 체계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하는 것"이라며 "논술을 치른 후 결과에 연연하느라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잊고 수능에 다시 몰입할 수 있는 마인트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중앙대 美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과 국제 기초과학 R&D 협약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지난 9월 미국 시카고 페르미 윌슨홀(Fermilab Wilson Hall)에서 페르미 국립 가속기연구소(이하 페르미연구소, Fermilab: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와 '국제 기초과학 연구개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앙대 김창수 총장, 김원용 산학협력단장, 김시연 물리학과 교수와 페르미연구소 나이젤 로키어(Nigel Lockyer) 소장, 뉴욕주립대 정창기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한국대학 최초로 DUNE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식적으로 'Fermilab Collaboration Center' 및 'DUNE Korea Office'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에는 협약을 기념해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교내서 즐기는 '글램핑'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중앙도서관에서 10월 한 달간 '글램핑 인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은 도서관 안쪽의 정원 '운정뜰'에서 텐트와 캠핑 테이블, 의자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과 독서, 스터디 등을 즐길 수 있다.

류현수 학술정보팀장은 "피크닉이나 캠핑이 생각나는 계절,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을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도서관에서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글램핑 인 라이브러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을을 즐기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면접 길수록 유리?... 40% "맘에 들면 더 질문"

(기업 면접관)

잡코리아, 기업 면접관 304명 설문
질문 많이 하는 이유 1위
'채용을 위한 확인 차원'

입사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 기업의 구직 면접관 절반 이상은 확신을 갖고 싶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면접 시간은 지원자 한 명 기준 평균 25.6분으로 집계됐다. 면접 시간별로 약 30분(34.9%)에서 20분(23.0%) 정도 진행되는 기업이 과반수 이

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응답자의 38.5%는 '면접시간이 긴 지원자가 채용될 확률이 높다'고 답해 면접 시간이 길면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면접시간이 짧은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응답자는 9.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떤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 묻는 결과 '채용할 만 하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란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과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지원자'(37.0%), '채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36.6%), '왜 지원했는지 입사동기가 모호한 지원자'(14.7%), '채용하

고 싶지 않은 지원자'(10.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 기업들의 면접 단계는 실무면접을 거쳐 임원면접까지 2단계로 진행되는 기업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단계만 진행되는 기업도 37.2%였다.

신입사원 면접방식(복수응답)은 '일대일 개별면접'이 5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수의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43.1%),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다수 참여하는 다대다 면접'(23.0%), '면접관 1명과 지원자 다수'(18.8%) 순이었다.

이밖에 최근 이슈화되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던 기업은 11.8%였고, PT면접(11.5%), 이색면접(3.6%), 토론면접(2.3%) 등을 도입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용수 기자